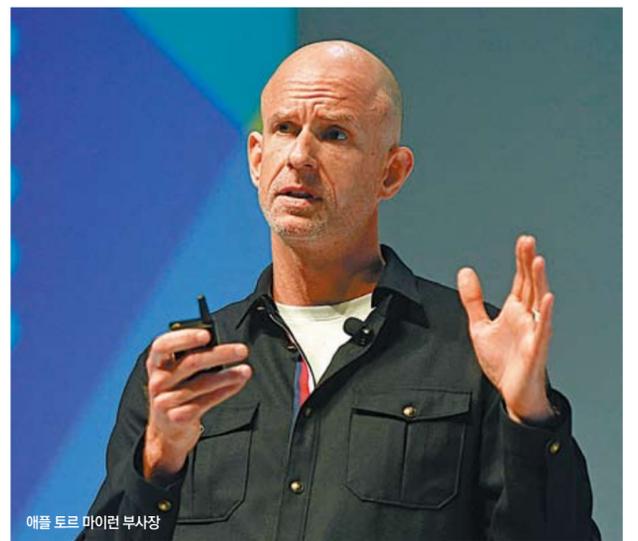




아마존, MS, 틱톡... 미디어, 칸 라이언즈를 만나다



페이스북 세릴 샌드버그 최고 운영 책임자



애플 토르 마이런 부사장

세계 최대의 크리에이티브 축제인 칸 라이언즈가 17일(현지시간)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개막했다. 올해는 미디어·브랜드·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프로그램 CLX(Connect, Learn, Experience)를 신설해 글로벌 마케터들을 위한 네트워킹의 장을 선보여 주목받았다. 아마존(Amazon)과 마이크로소프트, 틱톡, NBC유니버설 등이 CLX 파트너사로 선정돼 칸 라이언즈 무대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. 국내에선 이영희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오혜원 제일기획 CCO와 류지민 닷 인코퍼레이션(Dot Inc.) 매니저가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강연을 펼쳤다.

